

CONTENTS

2009 가을호 Vol. 14호

발행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발행인

김태현

실무위원

박수미 · 김영택 · 마경희 · 안상수
이미정 · 임희정 · 전기택 · 박복순

편집인

박수미

기획 및 편집

이경식

표지사진

김광숙(www.supil.co.kr)

디자인 및 인쇄

대한정보인쇄(주)
TEL. (02)2632-0416~8

젠더리뷰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필자의 소속기관이나 본원의 공식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002 편집자의 글 | 박수미

기획특집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004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 - 소외와 부인을 넘어 소통의 길로 | 이용균

011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정책의 과제 | 김이선

이슈브리프

020 한국사회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단상 | 박수미

027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의 여성 비정규직 | 이주희

032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사업 효과분석 | 민무숙

039 남성들, 그들만의 근로빈곤 문제 | 노혜진

054 미디어 속의 젠더 코드 - 소녀 이미지의 불거리화 | 김수아

국제리뷰

062 국제심포지움 : 아시아 지역의 이주와 사회통합 | 이선주

067 미혼모에 대한 한국사회 처우와 국제입양 | 이미정

073 OECD 젠더넷(GENDERNET) 회의 참가 | 이수연

연구노트

078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 필요성 및 개정 방향 | 박선영

081 여성가족패널조사 홈페이지 소개 | 김승연

085 한국의 新성장동력 - 여성 자원봉사활동 | 조선주

여성정책동향

090 여성정책동향 (2009년 3/4분기) | 최윤정

상시안내정보

098 시설 이용안내

099 여성연구 · GSPR · 젠더리뷰 투고 안내

102 자료이용서비스 안내

박 수 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동향분석팀장

뿌리 깊은 순혈주의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우리 사회에 다문화가정의 증대는 적잖은 도전이 되고 있다. 프랑스의 인구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원액이 크기로 유명한 프랑스 양육수당의 상당 부분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지급되는 점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Chasnaise 박사(인구문제연구소 연구원)는 ‘그들은 프랑스 국민이다. 그들을 다르게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대답했다. 최근 들어 외국인의 유입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 이주자를 어떻게, 어떤 수준으로 끌어안아야 할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배제와 통합’이라는 낡은 사회정책의 틀 속에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프랑스 인구학자의 대답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이에 젠더리뷰 가을호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사회 통합 방안을 ‘소외와 부인을 넘어 소통의 길로’ 향하는 방법과 다문화 가족의 자녀교육 지원을 통해서 접근해 보았다.

그밖에 젠더리뷰 가을호에 담긴 내용들은 매우 다양하다. 저출산 현상, 비정규직 보호법,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사업, 근로빈곤, 소녀그룹에 나타난 젠더코드 등등... 그만큼 우리 사회에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하나의 시대적 화두처럼 등장한 지도 오래 되었고, 비정규직 해고대란을 둘러싼 논쟁도 예견된 것이었다. 여성들의 일자리가 열악한 것은 첫 입직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도 귀추가 주목되는 일이다.

깊어가는 가을, 우리 사회의 이런저런 이야깃거리들을 둘러보며 생각을 정리할 때이다. 젠더리뷰 가을호가 생각을 정리하고 또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데 좋은 길동무가 되길 바란다.

2009. 9.